

# 해남 땅끝, 국토 순례 '메카' 된다

### 郡, 생필품 지원 등 감동 마케팅 추진 올들어 40여개 단체 3천여명 다녀가

‘국토종단 5km 지점입니다. 시작이 절반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국토 순례 출발지인 땅끝 해남군이 국토 대장정 메카 조성을 위한 감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해남군은 17일 “국토 종단 순례자들을 위해 5km 구간마다 응원 표지판을 설치하고, 땅끝 방문 기념 메달, 땅끝 로고 배낭, 생수와 쌀, 라면 등 생필품, 경찰순찰차 에스콧 등 각종 지원을 통해 해남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우선 땅끝에서 강진 방향(A코스)과 영암 방향(B코스)에 5km 구간마다 응원 메시지 표지판 20개를 설치해 국토 순례자들의 용기와 종주의지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미 구간별로 도로변에 ‘그대는 새 희망의 주인공입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멋진 그대, 흘리는 땀방울 만큼 의지도 강하세요’ 등 각종 응원 문구 표지판을 설치했다. 순례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다.

또 땅끝을 찾는 국토 순례자를 대상으로 한 감동 마케팅도 전개된다.

군은 국토 순례를 목적으로 땅끝 해남을 방문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기념 메달을 수여하고, 쌀, 김치, 라면, 생수 등 국토 종단에 필요한 각종 생필품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단체 순례단이 숙소 지원을 요청할 경우 마을회관과 학교, 교회 등과 연계해 무료로 숙소를 제공하고, 해남 경찰의 협조를 받아 순찰차 에스콧 등 안전 대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 올해에만 40여 개 단체 3천 명 이상이 같은 감동 마케팅의 혜택을 받았으며, 현재에도 국토 순례 지



해남 땅끝을 출발한 국토 종단 순례팀이 다음 목적지인 강진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15일 현재 땅끝에서 국토 종단에 나선 팀은 40여 개 단체 3천여 명에 이른다.

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최근 초·중·고생 100명을 이끌고 땅끝에서 국토순례에 나선 (사) 한국 청소년 광개토태평양순례단 관계자는 “구간마다 새겨진 응원문구에서 해남의 따뜻한 인정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특히 해남군이 무료를 제공한 숙소와 생수, 라면 등 각종 지원이 순례단에 알려지면서 100명의 청소년 모두가 해남을 사랑하는 마니아가 됐다”고 말했다.

김충식 해남군수는 “국토 대장정의 출발지인 해남 땅끝을 활용한 이미지 마케팅을 전개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면서 “해남의 따뜻한 정을 뽐낼당이외지인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모시겠다”고 약속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나비 고장 함평 “이젠 역사문화도시”

### 안후덕 선생 생가 복원·독립운동 역사관 건립 등 추진

친환경 생태도시 함평군이 활발한 보훈·현충 사업을 통해 역사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함평군은 상해임시정부 청사 복원 역사관 건립을 비롯해 월야면 출신 독립운동가인 석정 안후덕 선생 생가 복원, 나라꽃 무궁화 거리 조성 등 역사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보훈·현충 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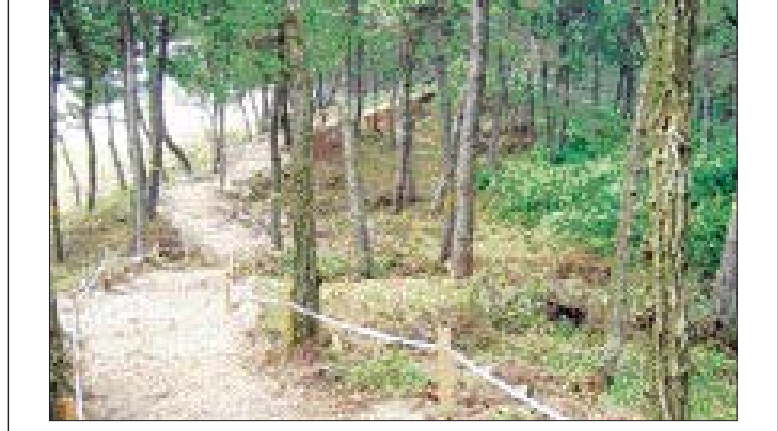
군은 함평군 신광면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 옆에 국비 등 26억4천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내 개관을 목표로 지상 3층 규모의 상해임시정

부 청사를 복원하고 독립운동 역사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전 재산을 임시정부 운영자금으로 헌납하는 등 독립운동에 헌신한 월야면 출신 석정 안후덕 선생의 생가 복원을 마무리한 데 이어 남일 심수택 의병장 기념관도 건립했다.

또한 해보면 ‘기미 문장 3·1독립운동 기념탑’을 정비하고 상징물을 설치했고 정유재란 때 큰 공을 세운 이덕일 의병장의 얼을 제창하기 위한 월산사도 중건했다.

/함평=박진표기자 pyj4079@



## ‘철학의 길’ 걸으며 저녁노을 감상

### 신안군 우전해수욕장 해송림에 산책로 조성

아시아 최초 솔로시티로 지정된 서남해의 대표적 관광 휴양지인 신안군 중도면 우전해수욕장 해송림에 웰빙 산책로가 조성됐다. <사진>

신안군은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웰빙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해송 숲속 사이사이에 길이 6km, 폭 2km의 산책로를 조성하고 ‘철학의 길’로 명명했다.

특히 해변을 따라 조성돼 있어 산책을 즐기면서 은빛모래

해수욕장과 반짝이는 푸른바다, 점점 떠있는 보석같이 아름다운 섬은 물론 수평선 넘어 붉게 타는 저녁노을 등 비경을 감상할 수 있다.

군은 서남해 최고의 해변산책공간인 해송 산책로가 국내최대 천연염 생산지인 태평염전과 송·원대 유물발굴지 유적지, 엘도라도 리조트와 어우러져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

## 곡성 옥과농협, 조합원 자녀 ‘꿈나무 교실’ 운영

곡성 옥과농협(조합장 박상철)이 여름방학을 이용해 관내 농업인 조합원 자녀중 초등학생 70명을 선정, 꿈나무교실(사진)을 운영하고 있다.

꿈나무 교실은 오는 30일까지 옥과읍 주산지역 아동센터에서 열리며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꿈나무 교실은 매일 오전 10시에 시작돼 독서지도, 농촌체험학습, 성

폭력예방 및 청소년이 지켜야 할 예절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곡성=정필수기자 bungy@



## 장성 ‘여권 콜서비스’ 호응 곡성 ‘섬진강지킴이 대탐사’

장성군이 시행하고 있는 여권 콜서비스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장성군은 지난 12일 진원면 용산리 마을 모퉁에서 지역 주민 18명을 대상으로 여권 현장접수를 실시했다.

장성군은 여권 발급기관인 전남도청 민원실과 연계해 현장접수를 실시했으며, 현장접수 결과 여권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5일 이내로 줄어들게 됐다.

여권을 신청한 강관순씨는 “농사일이 바빠 좀처럼 군청에 갈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직접 와 신청을 받아가니 편리하고 좋다”고 말했다. /장성=정필수기자 bungy@

곡성군이 섬진강환경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제 4회 섬진강지킴이 대탐사에 나섰다.

지난 16일 섬진강 발원지인 전북 진안군 데이섬에서 발대식과 함께 시작된 이번 대탐사는 오는 22일까지 6박7일동안 계속된다.

탐사대원들은 진안에서 광양까지 섬진강 총연장 212km 가운데 약 80km의 강줄기를 따라 걸으며 섬진강 보전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대탐사를 통해 섬진강지킴이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섬진강 수질보전을 위한 상생 전략을 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정필수기자 bungy@

## 임방울대로·왕버들로·목련로... 광산 신설도로 12곳에 명칭 부여

광산구가 신설도로 12곳에 새 명칭을 부여했다.

광산구는 최근 유재철 부구청장 주재로 새주소위원회를 열고 수완·신창·하남 2지구 신설도로에 지역 출신 유명인사나 문화유산과 같은 상징적 요소를 살려 임방울대로, 왕버들로 등 도로명을 부여했다.

임방울대로는 수완지구를 관

통하는 도로이며, 수완지구와 신창지구를 잇는 신설도로는 왕버들로, 하남2지구와 신가지구를 잇는 도로는 목련로로 명명됐다.

광산구는 도로가 신설될 선운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의 도로명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광산=기원태기자 wrtee@

## ‘색다른 테마’ 여수 시티투어 인기

하루평균 24명·작년비 70%↑

여수시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시티투어 이용객들이 늘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시티투어 이용객은 하루 평균 24명으로 지난해 14명에 비해 70% 가장 증가했다.

특히 이달 말까지 주말 예약이 완료되는 등 휴가철을 맞아 시티투어 인기가 뜨겁고 있다.

시티투어버스는 매일 오전 10시30분 여수역을 출발해 오동도와 2012세계박람회 홍보관, 진남관, 해양수산과학관, 향일암, 수산시장을 거쳐 오후 6시10분 여수역에 도착한다.

요금은 성인 3천원, 장애인·군인·노인 2천원, 초·중·고생 1천원으로, 관광지 입장료와 유람선요금·식비는 이용객이 별도 부담한다. 문의 (061) 666-1201.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 “여수 ‘애칭’ 지어 주세요”

### 내달 10일까지 브랜드 슬로건 공모

여수시가 지역 비전을 담을 수 있는 브랜드 슬로건을 다음달 10일까지 공모한다.

응모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2012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로서 여수시의 정체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독창적인 브랜드 슬로건 8편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 (<http://www.yeosu.go.kr>)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최우수작 1편에는 200만원, 우수작 2편 각 100만원, 가작 5편 각 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 담양 “한우 고급육 비율 20%P 높인다”

### 가족 관리 최적화 등 통해 2010년까지 85%로

담양군이 관내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급육 출현율을 20% 포인트 가량 높이기로 했다.

담양군은 17일 1B 등급 이상 고급육 출현율을 현재 65% 가량에서 2010년까지 85%로 끌어올리기 위해 한우농가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우는 육질에 따라 1~3등급, 육량에 따라 A~C 등급으로 나뉘는데 육질과 육량이 1B 등급 이상인 경우 고급육으로 분류된다.

군은 관내 1천456농가에서 키우고 있는 2만6천355마리의 소에 대해 보조금 1억원을 투입, 1등급 정액을 공급해 고급육 출현율을 높일 계획이다.

군은 또 223농가에 8억원을 들여 자동급수시설, 퇴비살포기, 조사료 배합기·운반기 등 구입비를 지원해 축산농가 생산비를 10%

가량 줄일 계획이다.

이밖에 군은 올해 200농가, 내년 200농가 등 모두 400농가를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 인증 농가로 선정, 자체 브랜드인 ‘대숲맑은 한우’를 육성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의 가격만 유지되더라도 고급육을 생산한다면 한우농가의 소득이 보장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며 “가족 관리 최적화, 가족 스트레스 방지 등 사업을 통해 고급육 출현율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정필수기자 bungy@



담양에서 말리는 구슬땀. 막바지 무더위 속에 해남군 화원면 근평리에서 담배농사를 짓는 홍명신(38)씨가 비닐하우스에서 담뱃잎 건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1ha 규모의 담배농사를 짓는 홍씨는 KT&G와 계약 재배를 통해 연간 1천500만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다. <해남군 제공>

## 대형 붕괴 막은 ‘도로 지정담당제’

### 화순 지방도 낙석 발견...토사 제거로 사고 예방

전남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의 특수시책인 ‘지방도 노선별 지정담당제’가 대형 붕괴사고를 막았다.

비가 내리는 지난 14일 오후 노선별 지정담당제에 따라 화순군 이양면 옥리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을 순찰하던 정현규(43·전남도 도로보수과)씨는 도로변 절개지에서 작은 돌이 도로 위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 사업소에 신고했다.

공 붕괴’를 감행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다음 날인 15일 도로안전관리사업소는 붕괴 위험지역 토사에 물을 쏘아 약 2천여의 토사를 자유낙하시키는 독특한 공법으로 대형 붕괴사태의 위험 요인을 제거해 약 9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김병학 전남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은 “국지성 호우와 태풍 등에 의한 자연재해 방지를 위해 지방도 노선별 직원담당제를 더욱 강화하는 등 대비 태세를 완벽히 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순천지역 기업 입주 잇따라

순천지역에 기업들의 입주가 잇따르고 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7월부터 2년 동안 59개 업체가 관내에 입주했다.

특히 해룡산단에 포스코 마그네슘 관재공장이 들어서 신소재 관련 클러스터 조성의 토대를 마련했고, 마그네슘을 생산하는 21개 업체가 창업준비 중이다.

또 AIG 생명보험 콜센터도 유치해

300여명의 여성 신규 고용 창출 효과를 거뒀다.

순천지역에 이처럼 기업입주가 활기를 띠는 것은 광양항과 인접해 있고, 여수 엑스포 개최에 대비해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의 인허가 등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해결하기 위한 ‘기업투자 지원센터’ 운영 등 순천시의 적극적인 기업

## 화순군 ‘민원 원스톱 처리’ 호평

### 인·허가 전담 창구 설치, 기간 대폭 단축

화순군이 원스톱 민원처리로 민원인들에게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

화순군은 지난해 3월부터 인허가 전담창구를 설치, 복합민원도 1회 방문으로 처리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또 올 상반기에 통합증명 발급기 3대를 설치해 주민등록과 인감, 지적도, 토지대장 등 10여종의 증명명을 신속히 발급하고 있다.

이밖에 인허가 전담부서 옆에 별도의 민원인 휴게공간

유치 노력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순천시는 해룡산단과 읍촌 제1산단,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기타 개별단지 등에 관광호텔과 레저·위락시설, 급속 및 특수강 관련 업체도 유치할 계획이다.

한편 순천시는 민간자본 4천756억 원을 투입해 해룡면 신대리 일원 300만㎡ 규모의 신대배후단지를 오는 2010년 말 완공 목표로 조성 중이다.

/동부취재본부=박진표기자 light64

